정책 제안서

생애주기별 정책 연속성을 위한 청년 문화공간 참여디자인

2024 청년정책 경진대회 아이디어 요약서

제안분야

[ ] 일자리 [ ] 주거·복지·금융 [ ] 교육 [선택] 문화·참여·권리 [ ] 기타( )

핵심내용

사회 변화에 따라 성인 인식 시기가 지연되며 만 1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 개념이 새로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개념의 저변화 및 지역 차원 대응 부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참여디자인 제언으로 청년기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기획 배경

관련 현황 및 기존 문제점

코로나 19시기를 겪으면서 성인 이행기는 지연되어왔다. 입시에 몰두하는 10대 청소년과 24세 이후 추가 교육·훈련을 받으며 안정적 직업·독립을 탐색하는 청년 사이 새로운 성인기, '후기청소년'의 등장이 이를 대변한다. 청소년기는 차츰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기청소년 맞춤 지원 정책의 필요성 역시 점차 대두되었다. 후기청소년은 성장세대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 미비는 한국사회의 미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다는 다수 청소년 정책 전문 연구원들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 생애주기별 정책접근 자체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청소년 관련 법규마다 다른 청소년 나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개념적 혼란 역시 19세 이상부터를 성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주요한 요인이다. 본인이 아직 청소년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후기청소년도 다수이며 지역사회 또한 이들을 대개 청년기의 일부로 설정하고 정책에 접근한다. 그러나 주거 공간, 일자리, 창업, 저금리 대출 등의 청년 지원 정책은 대학 입시를 갓 마치거나 10대를 벗어난 지 오래지 않은 후기청소년에겐 다소 적실하지 않다. 결국 후기청소년은 청소년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면서도 동시에 청년 정책과 다소 동떨어지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2023~2027)에는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후기청소년 안정적 삶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자체별 후기청소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기관 차원의 사업 운영·전략 등 포괄적 접근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목적 및 필요성

서울을 필두로 한 수도권은 2013 ~ 2022년간 20대 순이동 인구가 60만 명에 육박하는 등 후기청소년을 비롯한 청년 문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 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대응과 요구는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기에 생애주기별 정책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주요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지자체·지역사회의 청소년·청년 기관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 기조로 인한 후기청소년의 높은 비중, 후기청소년을 상대로 한 생애주기별 정책 공백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청년기관의 주된 사용자 범주의 확장은 합리적이다. 코로나 시기부터 촉발된 청년 참여 현장 변화 역시 문화공간 구성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청년 시설 이용자 수 감소, 낮은 인지도, 유휴 시설(공간)화, 사업 규모 및 예산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황을 근거로 청소년·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매년 서울 내 청년 자치기구, 정책 제안 창구를 통해 제시되었지만, 실질적 정책 입안으로 이어지기엔 어려운 막연한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왔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기존에 부재했던 청년 문화 시설의 기획과 설계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청소년과 청년 통합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하였다. 이는 주된 사용자의 요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청소년·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접근을 꾀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획 내용 및 상세 설명

본 제안의 요지는 청년기본법 제4조에 기초해 공급자 중심이었던 청년 문화공간 설치를 주된 사용자인 후기청소년과 청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참여디자인의 방식으로 건축과 설계, 개관까지 전반의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청년 지원 담당자, 시설장, 관련 행정부서 공무원, 건축가 등 시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한곳에 모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특히 청소년·청년재단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참여기구 회원들이 함께한다면 시설 운영상에 있어 사용자들이 보고 느낀 사례를 종합하고 수요자 중심 개선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참여기구 밖 후기청소년들이 참여할 무대를 마련한다면 다양한 경로·수준의 의견 교류를 구비할 수 있다.

진행 과정에서는 비대면과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의 형식에서 벗어나 신설 복합 청년 문화공간 설립 협의회, 청년 자문단, 개관추진단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구상할 수 있다. 여타 분야 구성원들은 자신이 상상하는 시설의 모습을 공유하고 설계·시설의 특성·중점화, 운영상 방향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용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청년 지원 담당자, 건축사가 함께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해, 청년 친화 구조물 등 공공건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참여디자인의 경험을 처음 접한 구성원과도 발맞춰 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진의 검토 후 워크샵을 진행, 청년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성을 재고한다. 또한, 전반의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소년·청년 재단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해당 통합안은 후기청소년을 포괄하며 청소년·청년에게 연속성 있게 정책을 제공하고 기관 운영 방향을 논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전체 예산은 기존 서울 청년 문화 시설 재정비 과정의 평균 면적·규모·기간·청소년-청년 기관통합 및 추후운영을 고려하였을 때 15억~ 17억 사이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 효과

청년 친화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년을 여타 시민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단순히 공간을 확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도시와 시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구조는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주역', 후기청소년과 청년이 청년문화시설의 설치와 기획 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속 또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범주를 점차 늘려가는 시작점이자 지자체와 기관의 지원으로 이뤄진 공간적 의미의 청년 친화 모범사례로서 정착될 것이다.

한편 참여디자인 과정에서 주체로 기능함으로써 오는 경험치와 그 효능감은 확고한 청년 참여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기성세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성장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10년, 20년 뒤 각 지역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시민참여의 환류 구조이자 기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김광범, 박선경, 김남길, 하재명.(1998).참여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학교 계획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18(2),123-128.

(2)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김경준, 강경균, 변나향, 이미영.(2021).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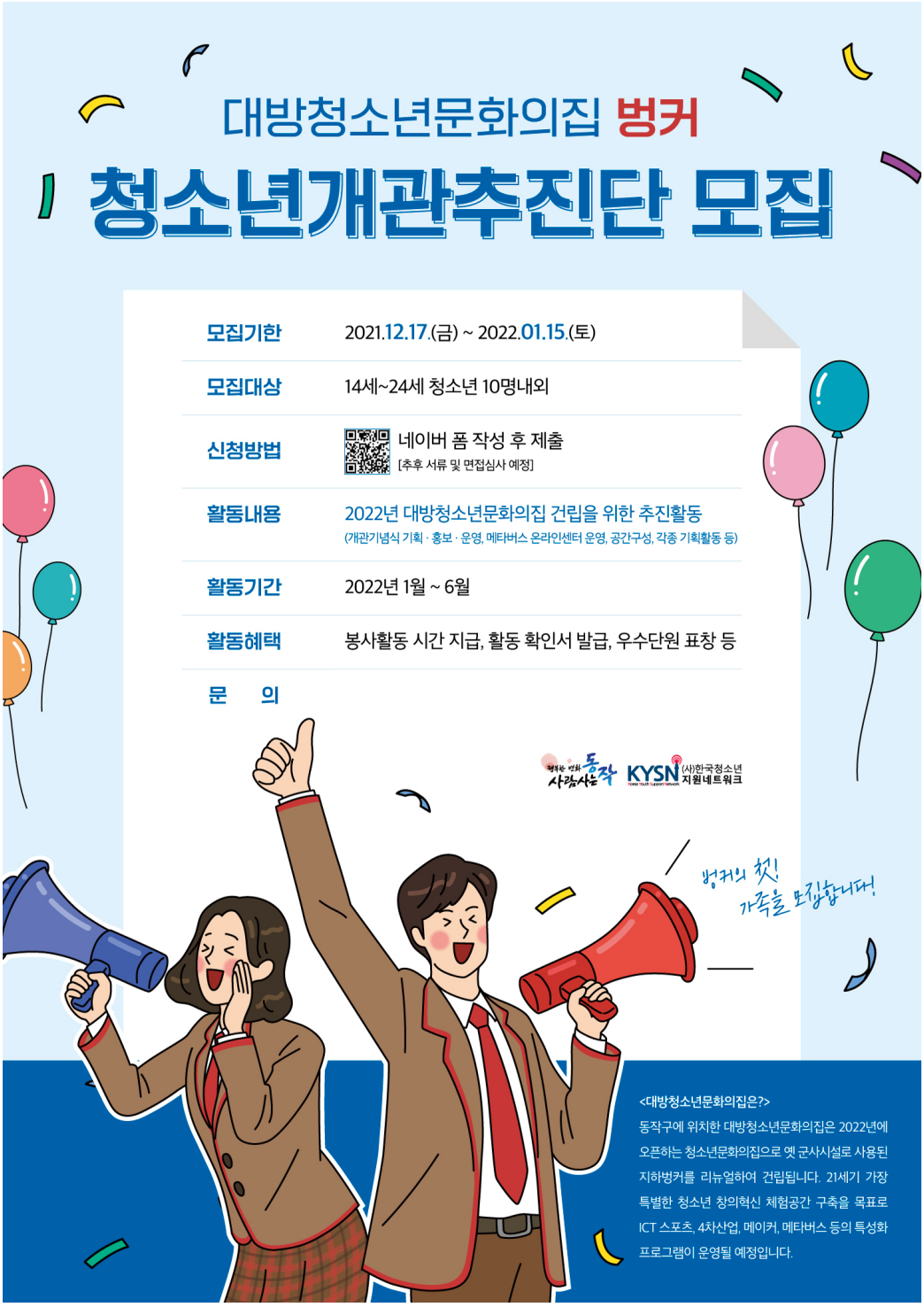
(4) 윤성원.(2021).수요자 참여와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 성남디자인혁신워크숍 사례를 중심으로.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64),121-133.

(5) 황여정, 임희진, 오승근. (2022).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정부부처합동.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관련 사진


대방청소년문화의집 벙커
청소년개관추진단 모집
모집기한 2021.12.17.(금) ~ 2022.01.15.(토)
모집대상 14세~24세 청소년 10명내외
신청방법 네이버 폼 작성 후 제출
[추후 서류 및 면접심사 예정]
활동내용 2022년 대방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추진활동
(개관기념식 기획 · 홍보 · 운영, 메타버스 온라인센터 운영, 공간구성, 각종 기획활동 등)
활동기간 2022년 1월 ~ 6월
활동혜택 봉사활동 시간 지급, 활동 확인서 발급, 우수단원 표창 등
문 의
KYSN (사)한국청소년 지원네트워크
벙커의 첫! 가족을 모집합니다!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동작구에 위치한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2022년에 오픈하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옛 군사시설로 사용된 지하벙커를 리뉴얼하여 건립됩니다. 21세기 가장 특별한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구축을 목표로 ICT 스포츠, 4차산업, 메이커, 메타버스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진제공: 대방청소년문화의집)

동작구에 위치한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개관 기념식 기획·홍보·운영, 공간구성 및 기획 등 건립을 위한 청소년 주도의 추진 활동을 구상 및 모집했다. 앞선 사례를 통해 바라본 이번 제안의 중점은 '진심으로 사용자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읽는다'라는 점에 있다.